

민주당 9명 후보등록... 컷오프·反 이재명 단일화 주목

이재명·이낙연·정세균·추미애·이광재·박용진·양승조·최문순·김두관 대선 경선 레이스 본격 출발... 오늘 한 자리에 모여 '프레스테이' 행사

9~11일 예비경선... 6명으로 압축

이재명 경기지사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0일 예비 후보로 등록,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관련기사 3면〉

9명의 예비 후보는 전직 국무총리 2명(이낙연 정세균)과 현직 도지사 3명(이재명 양승조 최문순), 현역 국회의원 3명(박용진 김두관 이광재), 당 대표 및 장관 출신(추미애) 등 중량급 인사가 즐비한 라인업이다. 예비 주자들은 1일 한 자리에 모이는 프레스테이 행사를 시작으로 TV토론 등을 통해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관문인 예비 경선(9~11일)을 통과해야 한다.

일단 예비 경선 구도는 '2강(이재명 이낙연) 3중(박용진 추미애 정세균) 4약(이광재 김두관 양승조 최문순)'으로 평가되지만 곳곳에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가 숨어있다. 우선 국민의힘 '이준석 돌풍'과 맞물려 예비 후보 가운데 가장 젊은 박용진 의원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추진 장관도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명 집는 때'를 지켜하고 나서면서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모습이다. 두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예비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다면 경선 판은 요동칠 전망이다.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오는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반(反) 이재명 연대'를 촉진, 경선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다. 특히, 두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다면 정 전 총리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정 전 총리는 이날 이 의원과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라며 "(여론조사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가 과연 예비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9월 5일 끝나는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에 들어가는 만큼, 예비 경선 결과는 반 이재명 연대의 파괴력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후보가 얻은 예비 경선 지지율을 밝히지 않는다 해도 비공식적으로 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예비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지 못한다면 반 이재명 연대는 본경선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당내 지지율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의 선전 여부도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가 지지율 2위 후보로서 예비 경선에서 선전한다면 본경선에서 그를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이처럼 각종 변수가 예비 경선 곳곳에 자리잡으면서 민주당 경선 흥행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단 최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지사의 예비 경선 지지율"이라며 "이는 결선투표가 있는 본경선에서의 역전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서는 9명의 예비후보가 지난 30일 등록을 마무리했다. 사진 맨 윗줄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두 번째줄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 의원, 박용진 의원. 사진 맨 아래 왼쪽부터 양승조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두관 의원. /연합뉴스

광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산'

광주시가 정부에 동구와 서구 등 일부 자치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이 충족된 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해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이 선정된다.

지난해 12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동구와 서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지수 변동률의 1.3%를 밑돌아 규제지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내에선 해제 여부를 놓고 반응이 엇갈린다.

해제를 찬성하는 측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시장의 냉각, 침체한 외곽지역 피해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해제 반대측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높은 집값, 투기 세력 억제 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유지를 주장한다. 또 다른 측에선 광주 5개 자치구가 경계성이 모호한 공동 생활권이라는 점을 들어 특정구만 해제 여부를 건의한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각 장마 앞... 전남 내륙 '폭염 주의보'



최고기온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

지각 장마를 앞두고 전남내륙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30일 담양군에 1일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1일 담양군 외에도 광주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 최고기온은 28~32도 분포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1일과 2일 전남북부내륙에는 최고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매우 덥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2일까지 높은 습도와 햇볕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체감 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9월 개통 지산C, 위험한 진·출입로 ▶6면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8차 회의 내용 ▶11면

도쿄올림픽 김학범호, 이강인 등 18명 확정 ▶18면

10 YEAR ANNIVERSARY

변함없는 클래스, 그 기대를 감탄으로.
Mercedes-Benz Certified 10주년 프로모션

고객 여러분의 만족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도록 특별한 혜택과 함께 10주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문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둔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